‘2024 영암왕인문화축제’…전통·현대문화 콘텐츠의 만남

郡, 28-31일 왕인박사유적지 일대서 ‘시공초월’ 주제

왕인박사 테마 퍼레이드·조선통신사 행렬 대규모 재현

2024 영암왕인문화축제가 이야기가 있는 콘텐츠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14일 영암군에 따르면 오는 28-31일 ‘시공초월 : 왕인의 문화, 빛이 되다’를 주제로 왕인박사유적지 일대에서 진행하는 축제가 다양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관광객의 방문 유도에 나섰다.

영암의 100리 벚꽃길과 왕인박사유적지, 상대포, 구림마을 등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왕인박사의 업적을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문화·예술·전시·교육 프로그램 등 신선한 경험을 제공할 채비를 마쳤다.

특히 영암군은 왕인박사의 문화 전래로 변화를 맞은 아스카 시대 일본의 문화에 초점을 맞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축제를 주관하는 영암문화관광재단은 대표 콘텐츠 행사로 행사 첫 날인 28일 오후 왕인박사 테마 퍼레이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선보인다.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야간 행진으로 관광객을 매혹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퍼레이드의 대미를 장식하는 실경산수공연 ‘월인천강’은 상대포역사공원의 자연을 배경으로 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물과 빛의 어울림을 배경으로 왕인의 일생을 작품으로 보여준다.

오는 30일에는 부산문화재단과 협업으로 왕인박사유적지 일대에서 킬러콘텐츠인 조선통신사 행렬이 대규모로 재현된다. 이 밖에도 영암군이 준비한 콘텐츠로 ▲왕인박사 춘향제, 학술강연회 ▲지역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만드는 개·폐막 공연 ▲왕인 플레이 그라운드, 북카페 왕인의 숲 ▲상대포 낙화놀이 낙화유수 ▲야밤에 피는 꽃 테마로드 플라워 일루미네이션 등이 준비돼 있다.

영암군이 오는 28-31일 왕인박사유적지 일대에서 ‘2024영암왕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구림마을 일원에서 진행된 거리 퍼레이드 모습. 〈영암군 제공〉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왕인문화축제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지역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과 문화 교류를 이어갈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나아가 친환경 축제를 위해 푸드코트에 다회용 그릇 사용을 전면 도입하는 등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올해 전남도 대표 축제에 선정돼 도비 3천만원을 확보, 홍보·마케팅 및 수용태세 개선 전문 상담을 받는다. 지난해 제24회 축제는 축제장 전역 경관조명 설치로 야간 프로그램이 강화돼 빛나는 전통과 새로운 트렌드의 조화라는 호평을 들었다. 과거 인물 중심이었던 축제를 확장해 콘텐츠 중심 축제로 진화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영암=나동호 기자

세계 각지 낚시객, 강진 마량항서 ‘손맛 대결’

강진 피싱 마스터즈 조직委 발대식

강진군이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2024 강진 피싱 마스터스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내로라하는 낚시객들이 오는 6월부터 강진 마량항에 모여 손맛 대결을 펼친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2024년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순철 강진 부군수 등이 참석한 이날 발대식에서는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 조직위원회 출범 선포 및 대회 일정 발표 등을 통해 강진 피싱 마스터스 대회의 공식 첫 행보를 알렸다.

조직위는 강진군, SDN 및 관계사, 민간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 전문가로는 프로그램 ‘도시어부’에서 실력을 선보인 신동만 프로와 최운정 프로가 참여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첫 시행된 이 대회는 전국에서 1천200여명이 참가해 강진군 마량 인근 식당, 카페, 편의점 이용 등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왔다. 대회 이후 마량항 바다낚시 어선 누적 이용객이 확연히 증가해 지난해 6-12월 군에서 파악한 경제유발 효과가 14억원에 달하는 등 마량 지역상권 활성화의 큰 구심점 역할을 했다.

올해 대회는 오는 6월 대형 어종(부시리, 방어) 시범 라운드로 시작을 알린다. 당초 8-11월에 감성돔과 두족류 2개 분야로 각 분야 당 예선 2회, 본선 2라운드, 감성돔 결선 1회를 치러 총 9회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대회의 다양성과 세계 각지 낚시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어종 시범 라운드와 본선을 더해 총 11회로 추진될 예정이다.

서순철 강진 부군수는 “국내 낚시객 1천만 시대로 군은 마량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대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올해 개최될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를 통해 마량항이 서남해안 바다낚시 메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김귀선 목포시의원 “반도체 팹 유치 공동기구 구성”

‘목포·무안·신안’ 연대 제안…지방소멸 위기 해결책

더불어민주당 김귀선(사진) 목포시의회 의원(용당1·2동,연동·삼학동)은 14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반도체 팹 무안반도 유치를 위한 목포·무안·신안 공동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최근 RE100 등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의 주생산지인 목포·무안·신안 등 3개 시군이 연대해 반도체 팹 유치를 위한 공동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골자다.

김귀선 시의원은 “반도체 팹의 무안반도 이전은 전남 서부권의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380여개 글로벌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 RE100 달성을 납품업체 등 공급망에 요구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무안·신안, 지역주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가 타시도로 송전되지 않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목포·무안·신안 3개 자치단체가 반도체 팹 유치를 추진할 공동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3개 자치단체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4차 산업혁명의 격동기에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귀선 의원은 지난 10·11대에 이어 제12대 목포시의회에 입성해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1월15일 제386회 임시회를 통해 무안반도 통합논의를 행정과 의회 투트랙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완도군,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한국LPG사업관리원 업무협약 체결…총 139억 투입

완도군은 14일 “지난 12일 한국LPG사업관리원과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완도군의 4개 면이 대상지로 확정됐다.

사업 대상지 확정으로 올해부터 5년 동안 총 사업비 139억원을 투입해 LPG 저장 탱크와 공급관, 가스보일러, 가스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대상지는 올해 고금면(418세대)부터 시작해 군외면(229세대), 약산면(146세대), 신지면(280세대)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고금면은 내년 준공 예정으로 군외·약산·신지면은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취사·난방용 연료를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관망을 통한 가스 공급으로 기존 대비 30-40%의 연료비 절감과 안전하고 편리한 연료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군수는 “사업 추진 시 저장탱크 부지 선정과 도로 굴착 등 주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며 “다양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대상지에서 누락된 마을은 추후 사업 확대 계획을 수립·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나주시 ‘배메산 사계절 꽃동산’ 조성 첫 삽

내일 시민과 꽃 식재 행사…빛가람 호수공원 관광 활성화

나주시가 배메산(사진)을 사계절 꽃이 피는 관광 명소로 조성한다.

나주시는 14일 “배메산 사계절 꽃동산 조성사업’ 착공을 기념해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꽃 식재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배메산 꽃동산 조성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의 랜드마크인 빛가람동 호수공원과 빛가람 전망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다.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 정주 만족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에 따른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 첫 단추로 배메산 일대 약 4천500㎡에 수국 2종(라임라이트·썸머러브) 1만630여주를 식재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한 뒤 시민들과 수국을 식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 이후엔 나주시임업후계자협회에서 묘목 나누기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시의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드는 의미 있는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시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꽃동산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해남군, 수출용 쌀 전문 생산단지 추진

관내 간척지 일대 60㏊규모 조성

해남군이 간척지를 활용한 수출용 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에 본격 나선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버텍스홀에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CJ제일제당, 옥천농협,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 등 6개 기관·생산자단체·기업과 쌀 수출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생산자 단체에서는 간척지에 전문 농업단지를 조성, 장립종 쌀 RPC 설립 등을 통해 수출용 장립종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출기업에서는 전문단지에서 생산된 쌀과 가공품 등의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해남군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 이용과 기반조성 등 각종 행정 지원을 원활히 협력할 예정이다.

수출용 쌀 전문단지는 내년 관내 간척지 일대에 60㏊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단계별 재배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남군은 매년 20만t 가량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 밥쌀의 수급 조절을 위해 기존 밥쌀용 벼인 단립종 대신 전 세계 쌀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장립종을 재배하는 수출용 전문단지를 조성해 국내쌀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장립종 쌀은 쌀국수와 파스타, 향미 등으로 주로 쓰이는 인디카 품종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의 인구 증가로 매년 시장 규모가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등으로 재배 가능지역이 확대되고 있고, 국내 재배에 적합한 품종이 개발돼 벼 품종육종·재배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한국의 농업 노하우를 살려 고급 장립종 시장을 공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박필용 기자

함평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1인 30만원…22일까지 신청

함평군은 14일 “초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입학축하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첫 학교생활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으로 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구비서류(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재학증명서·통장사본 등)를 갖춰 보건소에 방문하면 자격 확인 후 4월 초에 축하금이 지급된다.

군은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를 통해 안내문을 각 가정에 전달했으며 SNS와 자치회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지난해 103명에 이어 올해는 약 95명의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상익 군수는 “군의 미래인 함평 사랑둥이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다양한 출산·양육 시책을 통해 함평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